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91·끝> 열굴가난(下)

도심의 어느 사찰에 매월초하루가 되면 미인보살이 꽃을 올리러 온다고 한다. 정말 마주쳐 지나친 후 누구나 다시 한번 뒤 돌아볼 정도의 미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보살이 짙게 도착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집에서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온다고 했다. 또 그녀가 짙을 나선 이후에도 다시 전화가 온다고 한다. 몇시에 나갔느냐고 반드시 묻는다는 것이다.

전화 받고 답하는 일이 매달 반복되다보니 그것은 원주소임자에게는 스트레스였다. 이쯤이면 예쁜 것도 죄가 된다.

그런데 그날이 상투처럼 위쪽으로 뛰어나오는 것은 관상학적으로는 못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육계'라고 하여



키 커지길 발원한 명암 선사

'허공장구문지법'으로 기도해

12센티미터나 커졌는데...

다. 그렇게 된다면 교세 성장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선사의 고존한 법문보다는 성형의

과외의 견적서가 더 호소력을 가지는 시대에 걸맞은 방편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립권은 사심이 넘으면 자기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물론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자기분위기를 아름답게 연출해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도 '면상(面相)'보다는 '심상(心相)'을 더 강조했다. 아름다운 마음씨와 수행으로 가꾼 투명하고 맑은 얼굴을 아찌 딸 초적인 성행미인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즘도 열굴성행보다 더 어려운데 키를 키우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900여년 전에 기도를 통해 키를 늘린 명암염서(1141~1215)선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희귀한 예라고 하겠다. 그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다. 출가이후에도 내심 자기의 작은 키를 늘 의식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밀교 수행법의 하나인(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이라는 비밀법을 뒤아서 키가 좀더 커지기를 발원했다. 백일간 지성으로 기도한 덕택으로 키가 약 12센티미터 정도 더 커졌다고 한다.

<허공장구문지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기도법인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성장판'을 키울 수 있는 불교적 처방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왕이면 미인이 될 수 있는 기도법까지 찾아내어 한 세트로 묶어서 세간에 내놓으면 포교가 저절로 될 것이다.

■ 원설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은 글을 썼다'는 의미는 설 자리가 없다. 그저 마감시간에 쫓겨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는 말이다. 아마추어인 나도 일주일에 한번씩 '겨우 먹었다'고 해야겠다.

보잘것없는 글에 귀한 지면을 내준 '현대불교'와 분에 넘친 칭찬, 그리고 질책 격려해준 강호의 '고수'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후기

일주일에 한번씩 2년동안 긴 연재를 무사히 마쳤다. 스스로 재주없음을 돌아보지 않고 호기있게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마감시간이 딱까지 다가와야 뭔가 주제가 떠오르곤 했다. 흔히 프로그래머들은 '원고를 먹었다'고 표현한다. '먹었다'는 말속에 애시당초 '질문

을 글을 썼다'는 의미는 설 자리가 없다. 그저 마감시간에 쫓겨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는 말이다. 아마추어인 나도 일주일에 한번씩 '겨우 먹었다'고 해야겠다.

보잘것없는 글에 귀한 지면을 내준 '현대불교'와 분에 넘친 칭찬, 그리고 질책 격려해준 강호의 '고수'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봉사는 나의 운명...한 시간이라도 더...”

자비나눔 원력대상 수상

춘천화 보살



독거노인들을 위한 음식준비에 여념이 없는 춘천화 보살.

“한 시간 행복하고 싶으면 낯집을 잡고, 하루 행복하려면 낯집을 하고, 한 달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일년간 즐거우려면 재산을 팔러보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하라.”

광주·전남지역 불자들의 신령공동체인 자비나눔회가 12월 15일 광주 KBC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 '2006. 아름다운 자비나눔의 날' 행사에서 이사장 현상 스님은 이 같은 속담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봉사자들 가운데 '올해의 자비나눔 원력대상'을 수상한 춘천화(박춘자·63)보살도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남다른 감회에 빠졌다.

춘천화 보살은 자비나눔회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로부터 봉사시간 인증 적용 후 처음으로 600시간을 돌파해 이날 대상을 받았다.

“봉사는 제가 즐겨워서 하는 일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을 받고보니 부끄럽습니다.”

몇 년전 만해도 춘천화 보살은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였다. 오래전부터 앓아누워 있던 관절염, 심장병, 갑상선 등으로 5분도 걸지 못했다. 그러나 사찰에 나가 부처님 전에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다.

20여 년전, 사찰 봉사자들과 함께 음성꽃동네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날 춘천화 보살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우리 주위에는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아차피 몸품이는 죽으면 흩으로 돌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자”며 자원봉사에 적극 살기로 나서게 됐다.

움직이는 종합병원과 다름없는 몸을 이끌고 재활원을 찾아가 기저귀를 빨기 시작했다. 그런데 희유한 일이 생겨났다.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만은 잠시나마 몸의 고통이 사라졌다.

“걷기조차 힘든 병자였는데 남 위해 일하며 고통 이겨내”

3년간 600시간 봉사 인증

육체적 고통도 한 생각 돌리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자원봉사가 조금씩 늘어났다. 매주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 봉사를 하는 곳도 많아지는 서너군 데가 됐다.

1999년, 반갑게도 광주 불교계에도 본격적인 봉사단체인 자비나눔회가 생겼다. 근래에는 수요봉사팀장을 맡아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 초하루, 보름법회가 수요일과 겹쳐도 무조건 자원봉사가 우선이다. 독거노인

들을 위하는 것이 곧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요봉사팀은 모두 7명이다. 팀원들은 모두가 동생쯤 되는 후배들이다. 아침 8시30분이면 자비나눔회 작업장으로 와서 밑반찬 4종류를 만든다. 점심공양을 하고 다시 배달 팀과 함께 노인들에게 직접 반찬을 전달하고나면 하루가간다.

이번에 플라한 600시간은 2003년부터 시행된 봉사시간 인증서에 기록된 시간

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동안 상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염치불구하고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딸아이와 손주 녀석들도 봉사에 참석하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손녀와 함께 행사장에 나와 상을 받은 춘천화 보살은 요즘도 손가락에 반창고가 떨어질 날이 없다.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육신거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금년 봄부터 서서히 먹는 약을 줄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약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봉사할 때면 신바람이 나고 즐거워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 느낌을 평소에도 이어가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약 없이는 못사는 줄 알았는데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준엽 기자

백련재단, 종로에 ‘열린선원’ 개원

서울 도심 한복판, 그것도 사무공간이 즐비한 종로의 오피스텔. 이곳 8층 한 사무실에 ‘특별한’ 불교공부도당이 생겼다. 내건 작은 현판의 이름은 ‘열린선원’.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백련재단이 선방을 열었다.



열린선원 개원 원순 스님(오른쪽)이 오는 1월 개강에 앞서 재가불자들에게 ‘초발심자경문’ 강의하고 있다.

12월 19일,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836호에 열린선원을 개원하던 날, 감원 원순 스님(승광사 인월암)은 “초발심을 하는 재가불자들에게 ‘수행과 불교 공부도량’으로 누구에게나 열린선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원순 스님이 첫 행사로 선택한 것이 ‘초발심자경문’ 직강(直講).

원순 스님, 1월 17일부터 ‘초발심...’ 강의

불자 공부모임·단체에 장소 무상 제공

‘초발심자경문’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불자들이 일상공부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지론 때문이다.

열린선원은 이를 위해 실천실수와 함께 경전과 어록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07년 1월 17일부터 격주로 수·목요일 이틀간 ‘초발심자경문’을 강의한다. 법회는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열린선원은 이와 함께 3월부터 양산 통도사 前 강주인 조계종 승가대학 원장 지안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37평 규모의 열린선원은 특히 불자공부모임과 수행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개방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2)722-0633.

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곤
 전화주시는 본가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 11월 30일부터 ~ 2007년 3월 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엔터테인먼트,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유켄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4주 12월 21일 - 12월 27일 [155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21일[목]	근 덕	-	신남향 24km
12월22일[금]	신남향	-	나 곡 24km
12월23일[토]	나 곡	-	울 진 25km
12월24일[일]	울 진	-	해월현 24km
12월25일[월]	해 월	-	후포동대 20km
12월26일[화]	후포동대	-	대진향 19km
12월27일[수]	대 진	-	창 포 19km

제 5주 12월 28일 - 2007년 1월 3일 [71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28일[목]	창 포	-	장 사 20km
12월29일[금]	장 사	-	칠 포 19km
12월30일[토]	칠 포	-	포 향 19km
12월31일[일]	포 향	-	울릉도 216km
1월 1일[월]	울릉도	-	울릉도 184km
1월 2일[화]	울릉도 일주	-	40km
1월 3일[수]	울릉도	-	포항 보은사 2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까지 게재 드립니다.